

파도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 설법' 들리나요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소리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곧 여름 휴가철이 되면 '갯바위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너도 나도 동해, 남해, 서해의 바다를 찾아 피서를 떠날 것이다.

모처럼의 휴가기간 동안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른 바닷물 속에 풍덩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자. 특히 불자들은 물놀이와 휴식에 머물지 말고 파도소리 들으며 '듣는 성품(聞性)'을 깨닫는 소중한 기원을 만들어 보자.

"바다와 같은 깨달음의 성품(覺性)은 맑고 투명하며, 이 깨달음이 원래로 오희하여져, 원래 밝음이 일그러져 비쳐 대상(所)을 만들고 대상이 세워지니 '반조(返照)의 본성'은 들어가 숨어버리네." (능엄경)

저마다 가진 바다 같은 각성(覺性)을 망각하고 보고 들을 때 '반조하는 성품(照性)'마저 희미해진 우리들. 해조음(海潮音·파도소리)과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한 즉 파도소리를 듣고 본성을 깨닫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원리이며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야 할까. 듣는 성품을 깨닫기 위해 파도소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

파도소리 관하는 '이근원통' 수행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 즉, 일명 '관음법문(觀音法門)'은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성품'을 깨닫는 도리이다. <능엄경>은 이근(耳根)이 본원(성품)으로 돌아가, 6근의 해탈을 이루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듣는 놈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인하여 그 이름이 있게 되었네. 듣는 놈을 돌이켜 소리에서 벗어난 해탈한 놈을 무엇이라 이름 하라! 하나의 근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여섯 개의 근이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 (-根既返源 六根咸解脫)."

여기서 '하나의 근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여섯 개

의 근(眼耳鼻舌身意)이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는 부분이 이근의 원통(圓通)함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즉 6근 가운데서 이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나머지 5근도 동시에 열린다는 것이 이근원통의 법문이다. 그렇다. '안비설신의(眼鼻舌身意)가 참다운 원통이 되기 어렵고 오직 이근(耳根)원통만이 진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문수보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놈은 담장 밖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입과 코도 다시 그려하며, 몸은 집착하는 대상과 합해져 얹어 생기고, 마음과 생각은 공잡하여 단서가 없는 것이지만, 이근(耳根)은 담장에 막혀도 음향을 듣고, 멀거나 가깝거나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앞의 5근(眼鼻舌身意)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것(이근)만이 통진실(通眞實)인가 합니다."

소리를 듣고 깨달은 도리는?

<능엄경>에서 열거하는 25가지 수행법 중의 하나인 '이근원통' 수행법을 '관음법문'이라고 한 까닭은 관세음보살이 행한 수행법이라는 뜻과 소리를 관한다는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근원통 수행은 처음에는 소리에 집중(觀)하는 단계에서, 다음에는 '듣는 놈을 돌이켜 듣는 [反聞聞性]' 수행단계로 접어든다. 실제로 선사들 가운데는 이근을 통한 소리를 듣고 곧바로 성품을 깨달은(돈오)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백장(百丈) 선사 문하에서 어떤 승려가 종소리를 듣고 깨우쳤는데, 백장 선사는 '뛰어나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입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황연(香嚴) 선사는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에 견성했고, 원오(圓悟) 선사는 닭이 날개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조선의 서산 대사가 대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오도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 특히 마조 선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신라 왕자 출신의 무상 선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밑 없는 배(無底船)'를 타면 삼매의 바다에서 빈 배같이 노닐 수 있습니다. 저기 파도소리가 들리십니까? 파도소리를 따라 곧장 들어가십시오."

-일선 스님

는 반문문성(反聞聞性)의 원리를 염불에 응용한 인성염불(仁聲念佛:길고 느리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자성(自性)을 깨닫는 염불법)을 제창해 중국 염불선의 근원을 이루기도 했다.

'반문문성(反聞聞性)'과 화두

"듣는 자기의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反聞聞性]"는 이근원통법을 자성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선(禪)과 닮았다. 그래서인지, 이 '반문문성'의 수행법은 선종에서 '듣는 놈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정착되었다.

소위 염불공안법(念佛公案法)이 이것이다. 운서주(雲棲株杲) 선사가 <선관재진>에서 주장한 "염불하는 자 이것이 누구인가?"라는 공안이 대표적인 예다. 즉 "듣는 놈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염불하는 자 이것이 누구인가?" 화두를 돌이킬 때 소리를 넘어선, 언어와 생각을 넘어선 본래면목을 깨닫게 된

다는 것이다. '이근원통'이 선(禪)과 닮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은 독자들이 있다면 중국 허운(虛雲) 대사의 법문을 경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는 <참선요지>에서 "관세음보살의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참선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화두를 비춤다(照顯話頭)'는 것은 그에게 언제 나 홀로 빛나는 한 생각을 돌이켜 반조(返照)하는 것이 저 '나지도 알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임을 가르친 것이다.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는 것 역시, 그에게 언제나 홀로 빛나는 한 생각으로 들음을 돌이켜 자성을 듣도록 하려는 것이다. 회광(回光:빛을 돌이킴)은 곧 반조이며, 불생불멸은 곧 자성(自性)이다."

허운 스님은 "홀로 빛나는 한 생각이 불생불멸하여 소리와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로소 '화두를 비춤다'고 하고 '돌이켜 자성을 듣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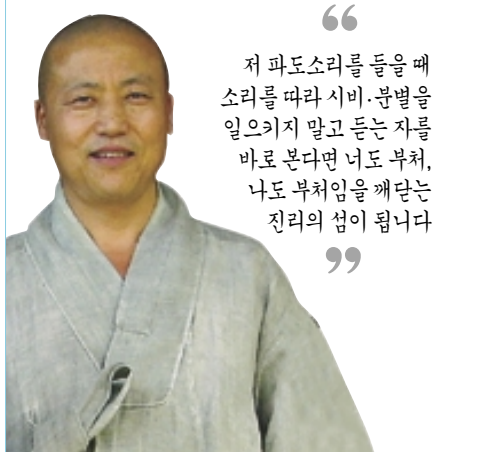
해조음(海潮音) 들을만한 바닷가 절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근본도량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남쪽 해안의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이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이며, 중국은 보타도(補陀島)의 조음동(潮音洞)이 관음성지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관음도량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기도도량에 얽힌 영험설화들을 간직하고 있다. 남해 금산 보리암, 서해 강화 보문사, 동해의 낙산사 홍련암, 여수 향일암 등이 대표적인 관음성지다. 이 밖에도 김제 망해사, 서산 간월암, 강릉 등명암가사, 부산 해동용궁사도 바다를 접한 성지로 꼽힌다.

파도소리를 들을 만한 해수욕장은 많겠지만, 이왕이면 관음성지나 바닷가 사찰에서 이근원통 수행을 해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daum.net



"저 파도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따라 시비·관별을 일으키지 말고 듣는 자를 바로 본다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임을 깨닫는 진리의 법이 됩니다"

"소리의的空함을 알고, 듣는 자신을 바로 보라"

인·터·뷰 금천선원장 일선 스님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후 송광사 수련원에서 10여년간 수련회를 지도하다가 11년전부터 고흥 거금도에 금천선원을 개원해 수련회를 열고 있는 일선 스님. 오랜 간화선 실참을 바탕으로 스님은 파도 소리를 듣는 성품을 관하여 화두로 들어가는 선(禪) 수행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법부들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따라가서 분별을 하고 번뇌를 일으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일체의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소리인 줄 알아서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空)함을 살펴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듣는 성품을 곧바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들음이 자유롭게 되면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 헤아리는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운 경계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이근원통법으로서 관음기도의 본질이다. 이런 도리를 안다면 관음정진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고?' 화두를 들 수 있다고 한다.

"불안하거나 험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광상이 사라지고 바로 이는(관하는)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더 나아가면 바로 이렇고 화두로 들어갑니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눈앞에 분명하게 뚜렷이 홀로 밝아 보고 듣고 깨닫고 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렇고?' 화두가 무리요이면 일할 때도 자연스럽게 공부해 이어진다. 스님은 운전할 때를 예를 들며

'차선일여(車禪一如)'의 공부를 이렇게 설명한다.

스님은 "행주좌와와 어묵등정에 조금도 구애 받지 않고 활발한 가운데 나타나는 이것(화두)을 들고 가다 보면 그 공덕으로 나타나는 삼매의 낙(樂)이 깊은 잠속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깊은 무명(無明)의 잠까지도 녹여버린다"고 한다. 이근원통법을 참선으로 연결시켜 효과적인 수행지도로 하고 있는 스님은 오늘도 정진을 당부한다.

"저 파도소리를 따라서 곧장 들어가면 소리는 없고 다만 들을 줄 아는 성품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만 가지 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섬입니다."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전통강원 학인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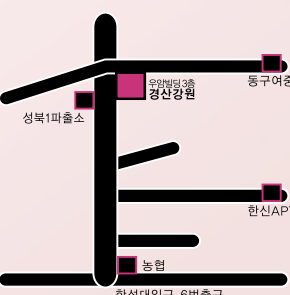
■ 초발심자경문·한문반

- ◆ 학기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 정원 : 15명
- ◆ 강의 : 금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 ◆ 학기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 정원 : 15명
- ◆ 강의 : 수요일 오후 2시

*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불국정사 수행 건강음식

구인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18년이 된 불자입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으나, 불자가 되고 난 뒤, 기도 방식대로 관음 정진을 하였습니다.

정진 중,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나타나시어,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고, 식생활을 개선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음식업)에서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년전, 대조사님께서 다시한번 나타나시어 약초를 일러주시며 그 약초로 차를 달여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부터, 나의 몸은 20~30대 때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좋은 차로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안좋은 분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깨달아 불국정사를 이루어 부처님법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께 알려드립니다.
불국정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과 좋은 음식, 좋은 차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 금강좌 협장 -

서울 종로구 창성동 150-3 불국정사
전화 02)736-3091,735-3268
011-9762-7949
팩스 02)3448-0661

산사체험(템플스테이)

마음을 방학착하는 순간 더위와 고통이 저 멀리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 참가방법

가족과 함께, 직장동료와 함께, 개개인 각각, 부부화합 절호의 기회

☞ 체험종목

참선, 명상, 풍류도호흡과 체조, 발우공양, 자연생태교실, 다도

◎ 1박 2일

- 1차 - 7월 21일(토) ~ 22일(일)
- 2차 - 8월 4일(토) ~ 5일(일)

◎ 2박 3일

- 1차 - 7월 27일(금) ~ 29일(일)
- 2차 - 8월 10일(금) ~ 12일(일)

법륜사 주지 법헌

인천시 서구 석남동 195-23

문 | 032)583-2003, 032)575-2004
의 | 010-4413-4268, 011-321-4120